

# 마장동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로 연결한 서울시의 新네트워크

## Seoul's New Network Connects with 'Dong' Community Centers

@Roh Kyung

물 '수(水)'와 한가지 '동(同)'을 합한 한자인 '동(洞)'은 같은 우물을 쓰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1920년 콜레라가 유행하자 북촌에서 이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같은 우물을 쓰던 공동체를 지킨 일을 계기로 만들어진 삼청동사무소를 동사무소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 참고). 이후 1949년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등장하면서 '동회'를 지방자치조직으로 확정한다. 동은 1962년 생긴 파출소 제도와 함께 1970년대 와서는 강력한 행정기관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렇게 적은 인력과 자원으로 넓은 면적을 통치할 수 있던 효율적인 장치였지만, 이후 인구이동이 줄어들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차 필요가 줄어들었다. '국민의 정부' 이후엔 아예 이름까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많은 동사무소가 통폐합됐고 일부는 복지·교육시설로 바뀌었다. 현재 동주민센터는 주민을 위한 자치기구로서의 성격과 행정을 위한 행정기구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미확정 공간'이다. 취재 심영규

The Chinese character 'dong (洞)' is a combination of the words for 'water (水)' and 'same (同)', meaning 'a community that shares the same well'. The origins of *dong* are thought to be the Samcheong-dong Office, which blocked all outsiders from the community well as a measure to prevent the spreading of cholera in 1920 [refer to *Metropolis: the Birth of Seoul*]. In 1949 Korea's first Local Government Act was established, with the dong committee confirmed as a local government establishment. This was primarily due to the rapid industrialization experienced by Korea in the 1970s, which prompted the high movement of the population, which required much administrative power. The dong was an efficient system, governing large areas through little manpower and resources, but with the decrease in population mobility and the advancement of data communication technology, dong became slowly obsolete. Its name changed from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to the 'Community Center', and many dong offices were merged with one another, while others became resident education facilities, or welfare and education facilities. Currently, the dong community center is an 'undetermined space', with both the characteristics of a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 and of 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reported by Shim Youngkyu



## 새로운 거점이 된 열린 공간

이렇게 동주민센터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한국의 행정 시스템으로 그 기능이 약화되고 있지만, 점조처럼 다양하게 뿌리내린 유무형의 도시 인프라로 앞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7월 22일 박원순(서울시장)은 '찾아가는 복지'란 새로운 개념을 선언하고 기존의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바꾸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서울시 자치행정과와 서울디자인재단, 도시공간개선단(이하 개선단)에서 사업을 진행했다. 연내 4곳만 진행하려던 계획에서 13개 구 80개 동까지 확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새로 선발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500명과 방문간호사 106명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시는 리모델링된 주민센터를 '복지거점'으로 정하고 2018년까지 423개 모든 동을 바꾼다는 계획을 밝혔다. 즉 가변성이 있던 기존의 미확정 공간을 새로 디자인해 복지기관의 성격으로 바꾸고,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생태계까지 지원해 '박원순표 복지 개념'의 핵심공간으로 설정했다. 복지뿐 아니라 '동네 커뮤니티의 중심'이 될 수 있게 설계과정에 공공건축가를 참여시켰다. 시는 80여 개 주민센터에 설계·공사비로 5천만 원씩 총 5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시범사업 대상 13개 자치구 중 4개 구(성동·성북·도봉·금천)는 61곳에 이르는 모든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했고, 나머지 9개 구(중로·노원·은평·서대문·마포·양천·구로·동작·강동구)는 각 2~3개 주민센터(총 19개)를 리모델링했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려고 했던 위진복(유아이에이건축사사무소 대표), 신승수(디자인그룹오즈 대표), 김창균(유타건축사사무소 대표) 등이 지난 4월 자치구별 MP가 됐고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던 김찬중(더 시스템랩 대표)이

김인철(아르키움 대표)과 함께 총괄 MP를 맡았다. 지난 7월 새로 바뀐 주민센터는 곳곳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금천구 독산3동과 성동구 송정동은 민원실 공간을 주민과 공유하는 극장으로 만들었다. 금천구 시흥동은 동장실을 주민사랑방으로, 성동구 마장동, 도선동 등은 주민 공유공간을 새로 만들었다.

## 눈에 띄는 성과들

150여 명에 달하는 서울시 공공건축가 중 희망 건축가 50여 명과 MP들이 추천한 건축가 30여 명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2012년 4월 공공건축가 제도가 시작된 이래 공공건물과 공간 환경 사업의 자문·설계 등을 위해 일부가 참여했지만 동시에 대규모로 참여한 건 처음이다. 도시의 밀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도심기반에 있는 네트워크인데 건축가들이 네트워크형 도시 인프라의 점진적 개선에 이바지한 것이다. 김찬중은 "건축가들이 규모가 작은 개별 도시인자들을 바꿔 지역사회의 새로운 발전을 꾀하고 전체 도시 네트워크의 변화를 추구했다"며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지역생활 인프라의 모델을 새롭게 개발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한다. 73개소 중 대부분 800만 원밖에 안 되는 설계비와 50일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개성 있게 바꾼 곳이 많았다. 금천구 MP를 맡은 위진복은 금천구 독산3동에 '독산극장'을 만들었다. 단순히 민원공간의 리모델링에만 그친 게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실제 일을 이후에 버려지는 공간이 저녁 시간에 스크린이 내려오면 동네 극장으로 바뀐다. 인근에 문화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을 초기부터 파악했으며 부족한 예산은 금천구의 지원을 받았다. 그는 "역설적이게도 유휴공간의 가능성을 공간이

아닌 시간에서 찾았다"며 "저녁과 주말에는 음악다방, 공부방, 다문화공간, 녹색장터 등 동네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성동구 마장동주민센터설계(정이삭, 에이코랩)는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냈다. 전면을 헐고 접이식 문을 만들었고 장애인을 위한 램프를 새로 만들었고 민원실 한쪽엔 어린이 놀이공간까지 만들었다. 마치 전혀 다른 공간에 온 것과 같은 효과를 냈는데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았다. 가장 저렴한 재료와 다루기 쉬운 미술품관을 사용했고, 사전에 디자인을 철저하게 하여 인건비를 줄이고 재료를 낭비 없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성북구 월곡 1동주민센터설계(김호민, 폴리머건축사사무소)도 주목할 만하다. 겉으로 봐서는 크게 바뀐 게 없지만, 민원공간을 대폭 넓히고 간단한 디자인으로 이전과 많이 달라진 효과를 냈다. 성동구 MP를 맡은 김창균은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인감 창고와 같은 유휴공간을 발견하고 이를 주민 공유공간과 복지이음터로 바꾸는 데 주력했다. 로비나 지하 등 다양한 장소를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고 통합된 기준을 제시해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 넓은 시스템, 성급한 진행

하지만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73명의 건축가가 한꺼번에 참여하면서 급하게 진행돼 문제가 많았다. 올해 4월 중순 시작해 5월 중순까지 설계하고 6월 15일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6월 20일 개청하는 일정이었다. 일정이 늦춰져 7월 초 개청식을 했지만, 완공이 늦어진 곳이 많았다. 설계비 800만 원과 공사비 4,200만 원의 예산으로 외주비가 발생하는 일의

@kyungsub Shin



@kyungsub Shin

금천구 MP를 맡은 위진복(유아이에이건축사사무소 대표)은 금천구 독산3동에 '독산극장'을 만들었다. 실제 일을 이후에 버려지는 공간이 저녁 시간에 스크린이 내려오면 동네 극장으로 바뀐다. Wee Jinbok [principal, Urban Intensity Architects] who was the MP for Geumchun-gu changed the Doksan 3-dong center into the 'Doksan Theater'. It wasn't a simple remodeling of the space, but he had created a new programme as well.



특성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가구나 기타 잡비를 제외하면 실제 공사금액은 2천~3천만 원밖에 안 된다. '재능기부'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었다. 성북구 MP를 맡은 강정은(에브리데이건축사무소 대표)은 "전폭적인 지원이 있던 금천구와 성동구를 제외하고 다른 자치구의 상황은 매우 열악했다"고 말했다. 뻘뻘한 일정이다 보니 각 자치구와 동별로 필요한 사항이나 특색을 조사할 시간이 없었고 당연히 개선단이나 MP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현실적으로 설계비나 공사비 일정이 빠듯해서 2018년까지 전 주민센터에 시행하는 계획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하향식이다. 몇몇 주민센터는 최근 수리한 곳도 있고 리모델링이 불필요한 곳도 있었지만 일괄적으로 사업에 포함됐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곳이 있었던 반면, 소극적인 곳도 많았다. 많은 건축가가 일일이 동과 조율하느라 어려움을 겪었다. 참여 MP들조차 상황이 다른 모든 주민센터에 똑같은 예산을 배분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 MP는 "시에서 너무 급한 일정으로 진행했고, 행정에선 안일하게 생각했다"며 "동에서 건축가를 단순한 해결사나 하청업체 취급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왜 이 사업을 하느냐에 대한 공감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건축가가 행정을 만났을 때

이 사업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건축가와 행정이 대규모로 만나는 첫 기회였다. 김태형(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단장)은 "행정의 영역에 건축이 얼마만큼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고 말한다. 김찬중도 "대규모 개발 방식보다 작은 커뮤니티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방식이 더 낫다는 가치를 확인할 기회"라며 "건축가와 행정이 만나는 일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개소식 이후 드러난 73곳의 결과는 극명하게 나뉘었다. 독특한 공간을 만든 곳이 있었던 반면, 인테리어 수준에 그치거나 가구만 교체하거나 아예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곳도 있었다. 성패는 건축가와 행정이 서로 얼마나 신뢰했느냐에 따라 갈렸다. 행정가는 건축가와 소통하는 방식이 다르다.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행정에선 건축가들이 설계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할 근거를 마련하기 어렵다. 공무원들도 감사 때문에 특별한 조항을 만들거나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예외를 둘 수 없다. 사업을 진행하며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진다. 현장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하고 요구도 늘어나고 업무 범위도 늘어난다. 건축가의 측면에서 보면 힘들고 억울하지만, 역으로 공무원이나 행정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사업 방식에 비해 많은 편의를 봐줬음에도 건축가들이 불만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김찬중은 "분명히 시스템이 미비했다"며 "올해는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이었고 보완하려는 노력도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잘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타산식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사업 후 외부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을 평가하고 철저하게 분석할 필요도 있다. 좋은 리모델링 사례가 생기면 일반인의 의식이 달라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행정에서도 기존과는 다른 태도로 변할 수 있다. 김창균은 "공공건축가라는 이름뿐 아니라, 1년에 한두 프로젝트는 공공을 위해 해야 한다"며 건축가의 사회참여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김찬중도 "공공 프로젝트는 소명의식이 없으면 하기 힘들다"고 강조한다.

### 서울시 新네트워크 만들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3개월 만에 금천구 10개소, 성동구 14개소, 성북구 19개소, 도봉구 13개소를 새로 개설했다. 내년엔 200개소, 2017년엔 140여 개소를 리모델링해 2018년까지 423개를 모두 고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적은 예산과 짧은 시간에 일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동사무소란 기존의 도심형 네트워크 조직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역설적으로 건축가들이 점조직을 활용해 '하향식'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MP들은 기존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건축가를 추천하고 짧은 시간 참여 건축가를 모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기존 방식이 아닌 새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시간과 예산이 적은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더 줄이고 계약을 단순화해야 한다. 사업 특성상 공공 프로젝트의 경험이 적은 젊은 건축가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전에 철저한 조사도 필요하다. 하나의 지침을 만들어 일괄 적용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지역의 수요에 맞출뿐 아니라 커뮤니티 중심의 생활 밀착형 모델까지 찾아야 한다. 올해 애초 계획했던 '24시간 개방',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주민참여 워크숍'은 지켜지지 않았다. 애초 개선단이나 MP 등이 충분히 지문하고 점검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건축가들도 개성 있는 마을 도서관이나 공동 프로그램같이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정해진 일정에 423개소를 모두 진행할 필요는 없다. 외부 평가를 통해 주민과 직원의 만족도가 높은 사례를 찾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끝으로 개선단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 이번 사업은 의미도 있었지만 많은 불만과 문제도 남겼다. 개선단은 건축가와 행정을 '통역' 하는 곳이다. 한 참여건축가는 "발주처인 자치행정과와 수행자인 자치구의 자치행정팀, 그리고 실제 동주민센터의 실무자 간 이해와 소통이 부족해 갈등이 많았지만 개선단의 역할은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반면 김태형은 "개선단의 역할은 자치행정과와 함께 연동해 건축가의 생리를 행정에 이해시키는 것"이라며 "앞으로 건축가 입장에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더 많은 제안을 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실제 올해 사업에 공공사업 최초로 '디자인감리'라는 용어를 계약서에 명시했고, 부족하지만 설계비를 상향 조정했을 뿐 아니라 제출물과 계약서를 단순화했다. 정아선(개선단 연구원)은 "앞으로 건축가와 시공업체를 추천하는 방식이나 계약의 단순화, 동별 업무 범위에 대한 조율을 하고 동시에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방법에 대한 변화도 연구하고 있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도시개발은 단순히 공간을 만들고 인프라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방식이다. 앞으로 콘텐츠 지향의 공간적 특성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필요하다. 주민센터뿐 아니라 제2, 제3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현재 서울시엔 공공 어린이집, 치안센터, 초·중·고등학교 등 네트워크화된 기반시설들이 많다. 최근엔 새로 짓는 것보다 기존 시설을 재활용하는 것이 추세고 이에 대한 건축가들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시기도 좋다. 동주민센터 사업은 젊은 건축가들이 활동하는 플랫폼이자 공공건축가를 키우는 기회이자 이를 통해 공공건축의 수준을 높이고, 건축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까지 바꿀 수 있다.



단순히 민원공간의 리모델링에만 그친 게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It wasn't a simple remodeling of the space, but he had created a new programme as well.





성북구 월곡 1동주민센터설계(김호민, 폴리머건축사사무소)도 주목할 만하다. 겉으로 봐서는 크게 바뀐 게 없지만, 민원공간을 대폭 넓히고 간단한 디자인으로 이전과 많이 달라진 효과를 냈다. The Seongbuk-gu Wolgok 1-dong's community centre, designed by Kim Homin (principal of poly.m.ur) is also eye-catching. From the outside, it doesn't look like it has changed all that much, but the space for the residents was largely expanded, and it feels very different due to its new simple design.

### **An Open Space that Became a New Base**

The Dong community centre is an administrative system unique to Korea, now with a decreasing power, but it still retains a number of possibilities as it is an aspect of infrastructure that has rooted itself across various areas. On 22 July, Park Wonsoon (the mayor,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nounced a new concept for 'welfare that finds its people', and laid out his plans to change the existing dong offices into 'dong community centres that find their people'. At the planning stage, the SMG carried out projects from March onwards in the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Division, the Seoul Design Foundation, and the Urban Space Improvement of SMG. The plan was initially to carry out demonstration projects in four areas this year, but it was expanded to 13 gu's and 80 dong's as the demonstration projects. This is to provide working environments for 800 newly selected welfare related government employees and 106 visiting nurses. The SMG stated that its plan is to designate the remodeled community centre as a 'welfare base', and to modify all 423 dong's by 2018. In other words, the existing undetermined space, which had factors of variability, will now be newly designed and have its characteristics changed into a welfare facility, and will become the centre of 'Park Woon soon's welfare concept', which will even support the town's ecological system, currently run by residents. The remodeling has also encouraged the participation of public architects,

with the aim of expanding the dong not only for welfare, but also as a place that serves as the centre of communication in the town. The SMG spent a total of 5.6 billion KRW on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the over 80 community centres, each costing 50 million KRW. The four gu's (Sungdong, Seungbuk, Dobong, Geumchun) of the 13 autonomous districts for the demonstration projects remodeled 61 community centres, and the remaining nine gu's (Jongro, Nowon, Eunpyeong, Seodaemun, Mapo, Yanchun, Guro, Dongjak, Gangdong) remodeled a total of 19 community centers. On April, those who were scheduled to participate in the demonstration projects, Wee Jinbok (principal, Urban Intensity Architects), Shin Seungsoo (principal, Design Group Oz), Kim Changgyun (principal, UTAA), along with former coordinators Kim Chanjoong (principal, The\_System Lab), and Kim Incheurl (principal, Archium), became the overall MPs for each autonomous district.

### **Eye-Catching Accomplishments**

Out of the 150 public architects in Korea, approximately 50 architects, and 30 further architects recommended by the MP's, participated in the demonstration projects. The SMG's public architect system began in April 2012, and these architects participated in various public projects, but never on such a large-scale. It is the network based on

the urban area that makes the density of the city possible, and architects are responsible for creating a progressive development for the city's network infrastructure. Kim Changjoong stated, 'Architects have changed the factors dictating the layout of each of the small sized cities, and have lead the local community on new directions and change for the overall network of cities. It is significant that we are developing a new model of infrastructure for local life, and one that works efficiently'. Of the 73 centres, each only cost 8 million KRW for remodeling and took only 50 days to redevelop them into unique new centres. Wee Jinbok who was the MP for Geumchun-gu changed the Doksan 3-dong center into the 'Doksan Theater'. It wasn't a simple remodeling of the space, but he had created a new programme as well. The space used to be empty by the evening, but now it transforms into a local theatre after sundown. Wee had noticed that there weren't many cultural facilities in the area, and fortunately the extra budget was provided by Geumchun-gu. On the topic of the centre he reflected that 'Paradoxically, I found the possibility of the underused space not in the space itself but time. In the evenings and weekends, the space can be used as a music room, study room, multi-cultural room, or a green market, and it will serve as a space that provides what the community needs'. The Seongdong-gu Majang-dong community centre (designed by Chung Isak, principal of a.co.lab) was the most efficient



in its transformation subject to such a limited budget. The front of the centre was demolished and a folding door was built, along with a ramp for the disabled and a children's play area on one side of the public service centre. It made people feel like they were in a completely different place, but such a metamorphosis did not require a great deal of money. Oregon pine plywood, which is an easy to use and a cost-efficient material, was used for the remodeling, and the detailed design reduced labour costs and the waste of materials. The Seongbuk-gu Wolgok 1-dong's community centre (designed by Kim Homin, principal of poly.m.ur) is also eye-catching. From the outside, it doesn't look like it has changed all that much, but the space for the residents was largely expanded, and it feels very different due to its new simple design. Kim Changgyun who was the MP for Seongdong-gu, changed the underused spaces of the centers into community and welfare spaces. Lobbies, basements and other such spaces were overhauled into new spaces, and display a standard which will exemplify to the success of these projects.

### **Old System, Rash Management**

Aside from all of these encouraging results, a number of problems have arisen, due to 73 architects participating all at once without a proper established system, and an accelerated management schedule. The designs began in mid-April to mid-May, the construction was completed by 15 June, in order for the remodeled centres to be opened on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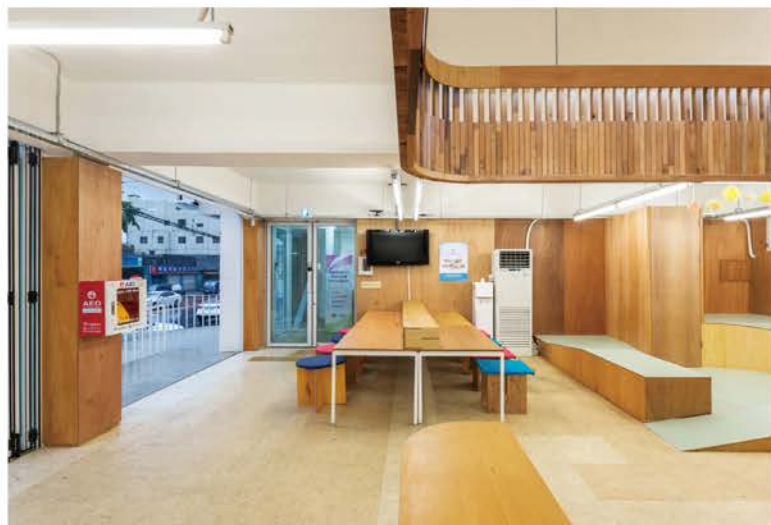
a few days later on 20 June. The scheduled was postponed, and the opening ceremony was pushed back to early July, and many of the completions of the centres were late. It is difficult to successfully carry out such projects, with planning costs of 8 million KRW and a construction cost of 42 million KRW, which leads to outside party costs. The actual budget for construction is only about 20–30 million KRW, excluding the funds needed for furniture and other related factors, which is a very small budget. There are discussions concerning the project that reflect upon the architects as almost like volunteer workers. Kang Jungeun (principal, every architects), who is the MP of Seongbuk-gu exclaimed, 'With the exception of Geumchun-gu and Seongdong-gu, every other district received an extremely tight budget'. The schedule of the projects was also very limited, which meant there was very little time for the participating architects and MP's to fully analyze the areas, so their roles were limited. There are also criticisms arising from the fact that with such a hurried schedule and a tight budget, the plans to remodel all community centres by 2018 is an impossible task. The largest problem is the top-down approach. Some community centres were recently repaired or did not require remodeling, but all were included as a matter of course as part of the project. This why is some centres showed much enthusiasm towards the project, and some did not show as much. The MPs even point out a problem: the same portion of the budget was distributed to each centre, when different centres have different demands or situations from each other. One MP stated, 'The SMG rushed the project and didn't think too deeply about the challenges posed to administration.

Also, the dong's saw architects as mere problem solvers or subcontractors. This is because there was no common understanding established on why the project must be carried out in the first place'.

### **When an Architect Meets Administration**

This project was the first large-scale opportunity for architects of various spectrums to meet with the administration. Kim Taehyung (director-general, Urban Space Improvement of SMG) stated, 'We questioned how much architecture can enter within the boundaries of administration'. Kim Chanjoong explained that 'The project was a chance to prove that improving the infrastructure of small communities is more efficient than the existing method of improving areas on a large-scale. We began the project with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it was an opportunity for architects to meet with the administration.'

After the opening ceremony in July, the results of the opened 73 centres were clearly different. Some centres were carefully remodeled into unique spaces, while others did not even begin a proper remodeling process, with only changes of the furniture or the interior. Their success or failure relied upon how much the architects and administration trusted each other. The administration's method of communication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architect. They use a different vocabulary and have such different intentions. The administration cannot quantitatively analyze new value created by architects, so it is difficult



성동구 마장동주민센터(설계 정이삭, 에이코랩)는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냈다. 전면을 헐고 접이식 문을 만들었고 장애인을 위한 램프를 새로 만들었고 민원실 한쪽엔 어린이 놀이공간까지 만들었다.

The Seongdong-gu Majang-dong community centre, designed by Chung Isak (principal of a.co.lab) was the most efficient in its transformation subject to such a limited budget. The front of the centre was demolished and a folding door for the disabled and a children's play area on one side of the public service centre.



for them to establish the basis for additional funding. Due to auditing, government employees cannot create special provisions, or make exceptions on the existing methods. As the project progresses, it led to more conflict. Unexpected events happen at the worksite, more needs emerge, and the work scope becomes wider. Looking at the situation, it might feel difficult and unfai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rchitect, but from the perspective of a government employee or administration, they might feel that despite their generosity, the architects seem only to be complaining. Kim Chanjoong suggested that 'The system was definitely lacking. This year was for demonstration projects so a better system could be developed, and there were attempts made to correct flaws'. Therefore, a close analysis on what worked and what did not work is needed to provide a better system for future projects. An outside survey to evaluate the changes to each site is necessary, and this needs to be analyzed closely. When a good example of the remodeling project is displayed to the public, their perceptions on the projects will change, which will lead to a change in perceptions of the administration. Kim Changgyun stated, 'A public architect shouldn't only be a term, but they should actually work on at least one or two public projects per year'. Kim Chanjoong remarked upon this state of affairs, stating that 'A public project is difficult to complete without the sense of responsibility'.

### **The SMG Creating a New Network**

The 'dong community centres that finds their people' project had 10 centres in Geumchun-gu, 14 in Seongdong-gu, 19 in Seongbuk-gu, 13 in Dobong-gu open in three months. Next year, 200 centres are scheduled for completion, 140 in 2017, and by 2018, a total of 423 centres are scheduled for remodelling. The reason why the remodeling projects were completed on such a tight schedule and budget is because of the existing urban network system of dong offices, and, paradoxically, to the fact that architects utilized point organization to participate in a top-down approach. However, the methods that will be used from now on need to be subject to a newly developed system. Since the schedule and budget is so tight, unnecessary documents must be minimized, and contracts must be simplified, considering the fact that public projects have public architects with little experience and young architects.



새로 바뀐 성동구 왕십리 도선동 동주민 센터  
The Seongdong-gu Wangsimni Doseon-dong community center

A thorough analysis ahead of time is needed as well. Guideline need to be created so that a standardized method can be established, and a compatible plan for the area's demand can be created, along with a project model that is closely attached to the lives of the community. The plans that were scheduled for a launch this year, such as 'open-doors for 24 hours', 'universal design application', and 'the residents participation workshop', did not come to fruition. This is because there is enough time given to the development foundation and for the MPs to fully analyse and test out their plans. Architects also must develop creative programmes in the towns, such as a unique local library, or public programmes. Lastly, the role of the development foundation must be expanded. The projects were meaningful, but they also left much discontent and problems. The development foundation is where the architect and administration communicate with each other. One of the participating architects pointed out, 'There was a lack of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between the administrations, and with the residents. However, the role of the development foundation fell short'. Kim Taehyung stated, 'The development foundation's role is to work together with the local administration to make the administration understand the situation of the architects. From this point on, we will propose various suggestions so that problems can be solv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rchitect'. The term 'design supervision' was used for the

first time in a public project contract, during this project, and although it still fell short, the construction budget was increased, in addition to the simplification and submission of the contract. Jeong Ahseon (researcher, Urban Space Improvement of SMG) explained, 'We are assessing how we can change the methods of proposing architects and construction companies, the simplification of contracts, and the boundaries of tasks between dongs, along with changing the management of the public architect system'. Until this point, urban development was carried out through a process of simply creating a space and then improving its infrastructure. However, the contents of a space are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Software that can change the perceptions of people towards a space needs to be further developed. This is why not only the community centres are important, but the further establishment of second and third networks is also important. Currently, there are various network facilities such as public daycare centres, community security centres, and elementary/middle/high schools. It will be a chance for young architects to have a platform where they can freely work, expand the number of public architects, and through such changes, the quality of public architecture will increase, and the perceptions of people on architecture will also be able to change.